

# 서울 주보

제2609호  
2026년 4월 19일(가해)

부활 제3주일

WYD  
SEOUL 2027  
개최까지  
D-471



**입당송** | 시편 66(65),1-2

온 세상이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2,14,22L-33

**화답송** | 시편 16(15),1-2가과 5,7-8,9-10,11(◎ 11가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뿔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

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1베드 1,17-21

**복음환호송** | 루카 24,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루카 24,13-35

**영성체송** | 루카 24,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지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 우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방교원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 예수고난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루카 24.13-35)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우리 수도회 수련자 두 명과 함께 일주일 동안 도보 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목적지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종일 걸어 지친 몸이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쉬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누리는 어둠에 잠겼사오니”로 시작하는 성가 <엠마우스>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도보 순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삶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미사의 핵심, 말씀과 성찬의 전례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는 기대와 설렘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자신들의 희망이었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구심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겪었던 일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풀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낮설지만 경이로운 체험이었고 신비스러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낮선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그 사람은 집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제자들에게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분이 바로 며칠 전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에 대해 복음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식탁에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들이 하느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느님의 만남, 비참한 인간이 그리스도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 신비를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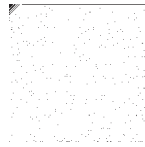
스쳐 지나가더라도 하느님을 언뜻 본 사람, 부활하시어 빛과 영광 속에 계신 주님을 본 사람은 행동합니다. 엠마오의 제자가 가던 길을 바꾸어,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말입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그림 목상

**현존의 좌표** | 썰어 둔 김밥의 단면처럼, 내 정주의 좌표에는 방향의 발자취가 그득합니다. 돌고 돌아 다시 떠나왔던 그 자리, 기어이 찾아오신 주님께 내밀 것이라곤 고작 이런 것이 전부인데, 이 부끄러운 것들로도 희망을 지어내시니,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네게 이런 달란트를 주노니...



최인아 마리아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저는 책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광고 회사를 ‘졸업’한 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제법 성과를 내며 30년간 일했으니, 결과만 보면 저의 첫 번째 커리어는 순탄했던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뽑지 않던 시절 용케 취직되어 한시를 놓았지만 이내 고민이 닳았습니다. 도무지 일이 맞지 않았고 재능도 있는 것 같지 않았으며 의미도 모르겠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재미가 느껴졌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15년을 넘겼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처럼 까탈스러운 인간이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계속 한 걸 보면 이 일이 이생에서 나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저 자신을 다독거리며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제 마음속에선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마음에도 없던 일을 30년씩이나 시키셨을까? 왜 애초에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걸까?’ 말하자면 저의 소명이 계속 궁금했고, 그러던 중 두 번째 커리어로 책방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방을 법인으로 만들기로 했으므로 이름이 필요했는데 제게는 유일무이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보이스! 저희 책방의 법인명은 더보이스(The Voice)입니다.

영어에는 직업, 일을 뜻하는 단어로 job, profession, vocation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vocation’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 말은 라틴어 ‘vocare’에서 나왔고 ‘부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voice’와 ‘vocation’입니다. ‘voice’는 목소리, 하느님의 음성이란 뜻이겠지요? 그러면 ‘vocation’은 무슨 뜻일까요? 네, ‘소명’입니다. 소명은

한자로 ‘召命’이라 씁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명하신다는 뜻일 테지요. ‘내가 네게 이리이러한 달란트를 주노니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쓰이거라.’ 제가 내내 찾았던 것이 바로 저의 소명이었습니다. 연봉 많이 받고 일이 재밌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30년이나 찾아 헤맨 끝에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말이나 글로 전하는 재주를 주었으니 그것으로 사람들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으라.’는 것. 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평생 했던 일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통하게 하는 일이죠. 지금은 책방에서 책으로 사람들 마음에 다리를 놓고 있으니 업의 종류는 달라졌어도 저의 소명은 내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당도한 듯한데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봄, 제가 할 일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저의 소명 안에 답이 있겠지요? 그분의 음성에 열심히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 특별면

다양한 특수 사목, 사도직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전해드리는 특별면입니다. 올해는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에 소속된 수도회의 수녀님들께서 다채로운 사도직 현장에서 체험한 하느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 이주 노동자들과의 동행



김신미 마리올리엠타 수녀 | 노틀담수녀회

제가 사도직 하는 곳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많이 분포된 농어촌 지역으로, 많은 도움 요청 중 저의 최우선 활동은 출산을 앞둔 미등록 여성 노동자와 그 아기의 돌봄입니다. 이곳에는 1년에 약 15명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가 참으로 큰 기쁨이며 축복이지만 그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너무나 큰 걱정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아 불안하고, 임신 6개월이 되면 자신들도 일을 쉬어야 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약 10개월 정도만 부부가 돌보고 그 후에는 고향 부모님께로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 보호나 사회적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아기를 고향 부모님에게 보낸 후, 부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여 아기 양육비와 가난한 가족들의 생활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소임을 시작한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수녀님, 도와주세요.”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낯선 땅에서 저체중으로 태어나 스스로 숨쉬기도 어려운 신생아를 두고 불안 속에 있는 산모, 아기가 아파 병원에 가도 소통이 안 되는 젊은 엄마들의 귀와 입이 되어 저 또한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도직을 막 시작한 어느 날, 걱정에 가득 찬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유리창을 통해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

다. 걱정만 가득한 수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동행하며 걱정과 불안들이 하느님 사랑의 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을 사기당하고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며 죽을 생각만 했던 임신부 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아기를 보며 병원비 걱정엔 눈물만 흘리던 산모 티안... 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녀님,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그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느님이 보내신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을 통해 ‘빛이신 하느님’을 저는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 소임 안에서, “변방으로 가십시오. 자신만을 위해 봉헌 생활을 간직하지 말고 가서 봉헌 생활을 나누십시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외침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그 ‘변방’은 힘없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주 사목 현장입니다. 이 변방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 변방에 있음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변방에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은인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성경’은 2026년 한 해에 걸쳐 마태오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복음의 주요 특징부터 시작해, 목상이 필요한 주요한 지점을 짚어가며 독자들과 함께 마태오복음을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 사람 낚는 어부



이우식 베드로 | 성서신학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짧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19) 지금 바로 취해야 할 행동과 미래의 전망을 답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배경과 신분인지는 아예 접어두십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바탕으로 미래의 전망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의 전망을 담아 선포하십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회개하는 첫걸음을 떼야만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앞서 하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마태 3.2 참조) 이어 사람들이 요르단 강에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하늘 나라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했습니다.

마태오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고 전해 줍니다.(마태 4.18-22 참조) 제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몸담았던 터전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이자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

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오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리 마태오를 부르는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은 더 짧습니다. “나를 따라라.”(마태 9.9) 세리로 살아왔기에 그의 직업적 배경으로 펼쳐줄 미래의 전망은 없었던 것이죠. 대신에 죄인으로 손가락질받아 왔던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함으로써, 당신이 앞으로 펼쳐나가실 일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마태 9.13)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중에서 열두 명을 뽑아 열두 사도로 선별하십니다.(마태 10.1-4 참조) ‘사도’는 파견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로부터 파견받아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왜 열두 명일까요?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대망 사상과 함께 그 대망을 함께 이루어 나갈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을 시사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도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옮긴 이름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을 담았기에, 당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인물은 많았습니다.(마태 27.16; 사도 13.6 참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름값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터뷰** | WYD(World Youth Day,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정성을 쏟고 있는 다양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주교님, 신부님을 비롯하여 봉사자, 참가자, 주제가 작곡가, 홈스테이 신청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 ‘다섯 번째 인터뷰’

해외 WYD 봉사자 - 브라질 샬롬 가톨릭 공동체 (comshalom)

# 평화가 너희와 함께!

벚꽃이 졌습니다. 한낮의 불꽃놀이처럼 우리를 그토록 설레게 해놓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피거나 했냐는 듯, 앞만 무성한 벚나무를 보며 잠깐 제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피지 않았나?’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 여겼던 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길을 접고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의심했을까요? 언제 계시기나 했었냐고 예수님의 존재까지 의심했을까요?

벚꽃을 지게 하는 봄비가 내리던 날, 브라질 샬롬 가톨릭 공동체에서 온 4명의 형제자매(제카, 안젤리카, 톨리오, 빅토리아)를 만났습니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회의 요청으로 두 달 전, 한국으로 온 이들은 각각 등록시스템 관리, 국제부, 순례자부, 봉사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2027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WYD를 위해 한국에서 머물 결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제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 어디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든 필요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복음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WYD도 복음화의 하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WYD가

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경험했냐는 질문에 빅토리아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2023 리스본 WYD를 계기로 샬롬 공동체에서 정결의 삶을 서원했어요. WYD는 단순한 ‘행사(event)’가 아니라 매 순간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어서 톨리오는 “많은 젊은이가 2027 서울 WYD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안젤리카는 “우리는 매일하는 개인 기도는 물론이고, 공동체 기도, 목주기도, 매일 바치는 미사까지 모든 신앙의 지향을 2027 서울 WYD에 두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허전함 속에 모든 문을 잠가 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인사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벚꽃은 피었고 우리 마음에 파스한 봄을 새겨주었듯,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를 간직한다면, 그 어느 계절이든 ‘타오르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WYD도 ‘서울’을 넘어 ‘온 세상’에 ‘2027년’을 넘어 ‘영원 동안’ 모든 이의 마음에 오래 머무는 평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인터뷰 · 글 서희정 마리아작가

**K톨릭: 영화** | 서울주보는 2026년을 맞아 K톨릭 특집을 선보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문화, 신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고유하게 빛어낸 빛나는 가치를 스스로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중 K톨릭 영화칼럼은 한국 문화를 잘 담은 우리 영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며 성찰을 이어가는 코너입니다.

# 우리와 그들 사이, '너희'가 사라질 때

- 영화 <우리들>: 2016, 윤가은 감독 -



김용은 제오르지아 수녀 | 살레시오수녀회

“너 금 밟았어.”

바닥에 그어진 가느다란 선 하나가 아이를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나 안 밟았어!” 주인공 선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항변하지만, 아이들의 공세에 밀려 ‘우리’라는 선 밖으로 쫓겨납니다. 피구라는 놀이가 문득 잔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밀려남은 운동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실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선이는 늘 금 밖, 그 어딘가 위태로운 경계에서 있습니다.



실은 설계된 ‘우리들’ 안에 갇혀 살아 갑니다. 그 안에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인 ‘너희’는 사라지고, 타자화된 집단인 ‘그들’만 남게 됩니다.

“자꾸 때리고 또 때리면... 그럼 언제 놀아?” 괴롭힘을 당하고도 다시 친구에게 다가가는 이유를 묻는 누나에게, 어린 동생이 건넨 말입니다. 그 안에 묵직한 화두가 있습니다. 복수와 응징이 끝없이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언제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름방학, 선이에게 전학생 지아가 다가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비밀을 나누며 선이의 세계에도 처음으로 ‘우리’라는 울타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우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개학 후 지아는 선이를 외면하고 다른 아이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이는 다시 선 밖에 외톨이로 남습니다. ‘우리들’, 참 따뜻한 말인데 어딘가 서늘합니다. ‘우리’가 견고해질수록 그 바깥에 남겨진 누군가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니까요.

오늘날 이 ‘금’은 운동장 바닥에만 있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위 스크롤 선에, 댓글 창 의 적대적 언어 속에, 정치와 계층의 벽 사이에 촘촘히 그어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나를 긍정해 주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안락한 울타리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

영화의 마지막, 다시 피구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아가 선 밖으로 몰립니다. 아이들이 “너 금 밟았어!”라며 지아를 몰아세울 때, 선이가 나서서 말합니다. “지아, 금 안 밟았어.” 자신을 밀어냈던 친구를 향해 선이는 선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되갚음이 아니라, 건넌으로.

예수님은 늘 선을 넘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어 놓은 경계 바깥으로 기꺼이 걸어가, 이름 없이 밀려난 이들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배척해야 할 ‘그들’이 아닌, 언제나 사랑해야 할 ‘너희’였으니까요. 그리고 금을 넘어간 그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너희’를 ‘그들’로 지워버리고 있지 않은지요.

## 2026년 성소 주일 행사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를 주제로 4월 26일(주일) 오후 1시~오후 5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성소 주일 행사가 진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모든 신자

성소 주일 미사	집전: 정순택 대주교님 공동 집전: 정순택 대주교님 외 사제단	14시~15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기념 행사	신학생 부스	13시~17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일대
	수도회 체험 및 홍보 부스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 성당 개방	
	청소년국 부스	
	WYD 부스	
	생명위원회 부스 푸드트럭	

## 4월 20일(월)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0년 4월 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 1944년 4월 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6세)
- 1986년 4월 23일 임종국 바오로 신부(80세)
- 2008년 4월 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3세)
- 2008년 4월 24일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72세)
- 2023년 4월 20일 서유석 사도요한 신부(69세)
- 2025년 4월 24일 탁현수 아우구스티노 신부(83세)

알림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 교구청 알림

###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심상무 개인전: 1전시실  
김현진 개인전: 2전시실  
이현주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 17일(금)~26일(주일)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행사: 제5회 수퍼클래스 북토크

주제: 소설가 최은영과의 대화 ‘소설읽기, 정직한 게 나를 대면하는 시간’ / 문의: 02)2230-2050  
신청: WYD공식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때: 5월 9일(토) 16시~18시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코스트홀

### 제31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대상: 사회교리학과 졸업생, 관심있는 신자  
주제: 지학순의 길을 통해 다시 읽는 사목 현장  
때, 곳: 4월 2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문의: 02)727-2249 정의평화위원회  
홈페이지: <https://catholicjp.or.kr>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50주년 “사랑, 더 큰 희망이 되다”

故김수환 추기경님이 ‘사회 속의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해 1976년 9월에 설립하신 교회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과 은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희망의 기쁨을 나누고자 50주년 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251(caritas0927@hanmail.net)  
홈페이지: <https://caritasseoul.or.kr>

서울가톨릭분야별협의회(세미나)		
4월 28일(화) 14시	생명을 돌보는 이들 · 여성복지	가톨릭 회관
5월 21일(목) 14시	서울가톨릭데이케어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5월 22일(금) 15시	가톨릭 노인종합복지관의 전인적돌봄 실천	
5월 28일(목) 14시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역할과 방향성	
6월 16일(화) 13시30분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 · 공동체성 확립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9월 17일(목) 10시	삼포지음(산하)시설 종사자 정체성 및 현장 실천방안 연구	코스트홀
9월 17일(목) 15시	감사미사 & 기념식(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명동대성당

### 시복시성 기원미사(221회)

때, 곳: 4월 21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명동 가톨릭회관 CPE센터: 02)727-2434  
가톨릭중앙의료원 CPE센터: 02)3147-9428  
수원 성빈센트병원 CPE센터: 031)249-7950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1) 자존감 되찾기 / 강사: 문중원 신부  
때, 곳: 4월 20일 · 4월 27일 · 5월 11일 · 5월 18일  
매주(월) 19시~20시30분, 교구청별관 112호  
2)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근력 키우기 (윤제연, 이탈리아어(류점파))

### 환경사목위원회

문의(신청): 02)727-2278, 2283(<http://eco.catholic.or.kr>)  
1) 제60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4대강, 실상과 대책  
때, 곳: 4월 22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사: 최승호 PD,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부위원장  
2) 지구날 날 소동 행사

때: 4월 22일(수) 20시~20시10분  
곳: 가정 · 본당 · 각단체 및 기관  
내용: 각 본당 및 모든 신자분께서는 해당 시간 동안 전등 소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질서보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며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합시다 작은 실천이 모여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큰 사랑이 됩니다

### 3) 태양광 발전소 설치 설명회

대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심 있는 본당 사제, 수도자, 사목위원  
때, 곳: 4월 23일(목) 14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CCM 생활성가 코드 반주법

때, 곳: 5월 4일~6월 29일 매주(월) 19시~21시, 중립동 최양업홀 / 등록기간: 4월 13일(월)~29일(수)까지  
강사: 김상균 교수 / 문의: 02)393-2213-5 성음악위원회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과 미사)  
대상: 낙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5월 12일(화)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문의(신청): 02)727-2350

### 민족화해위원회

1) 1509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함흥교구 나산옹기 분당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때, 곳: 4월 24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 5월 접수

투어기간: 5월 1일~31일  
시간: (수) 14시 / (토) 10시40분 / (토) 16시30분  
신청방법: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접속 후  
신청 / 신청일: 4월 20일 10시 오픈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 2026 토요 성모신심 미사와 20단 묵주기도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 강의: 조창수 신부  
내용: 성모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2027 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성지 순례 피정: 3월 9일~23일 / 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가톨릭 성경영성아카데미

### 전례 특강

대상: 전례봉사자, 전례분과위원  
때: 5월 16일 · 5월 23일 매주(토) 13시~17시(2주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3만원(선착순 200명) / 5월 7일 접수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사목국 홈페이지 알림 · 공문 게시  
관 참조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인준단체 알림**

**모임**

**9지구 성령기도회 낮 피정**

때, 곳: 4월 23일(목) 13시~16시, 천호동성당 대성전  
 미사: 김재덕 신부 / 문의: 010-8872-6147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말씀·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제40차 신규약 성경 통독 피정(성령강림사도수녀회)**

때, 곳: 10월 8일(목) 17시~18일(주일) 15시, 루하  
 피정의 집 / 문의: 010-7165-0166

**청년 해외 성지순례(이태리 로마·아시시 등)**

대상: 미혼 남녀 청년 신자 / 문의: 010-5715-1702  
 때: 7월 18일(토)~29일(수) / 7월 30일 도착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부활 감사 대피정(지혜의 샘)**

강사: 김대영 신부(강의·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때, 곳: 4월 29일(수) 10시~17시, 인천교구 지혜의샘  
 (부천시 경인로61-1, 중동역5분거리) / 점심 무료 제공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멈춤, 그리고 침·도심 속 침묵 피정**

내용: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침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5월 9일(토) 11시~10일(주일) 11시, 노들담  
 서울 교육관(종로구 북촌로 54) / 4월 30일까지 접수  
 1인 1실 / 문의(접수): 02)2135-9398 한국CLC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때, 곳: 매월 마지막주(토) 14시~(주일) 14시, 초정  
 성령회관 /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1박2일(3식)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상도동성당 2층 대성전  
 4월 21일(화) 조남구 신부 5월 19일(화) 양창우 신부

**예수회 말씀의 집 영신수련 피정(식별·선별)**

문의: 031)254-8950 수원 말씀의 집  
 8월 5월 1일~10일, 8월 16일~25일  
 기타 5월 17일(음악 피정), 5월 22일~25일(디지털 디톡스)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5월 1일 10시~15시30분
성경 피정(시편 아가서)	4월 24일(금)~26일(주일)
치유침묵기도 피정	5월 29일(금)~31일(주일)
청년 명상 캠프 (주님과 함께 명때리기)	6월 16일(화)~19일(금), 오상영성원(강원도 양양)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 30일(토)~31일(주일), 6월 27일(토)~28일(주일)
2박3일	6월 12일(금)~14일(주일), 8월 5일(수)~7일(금)
3박4일	4월 23일(목)~26일(주일), 6월 4일(목)~7일(주일)
4박5일	5월 1일(금)~5일(화), 7월 22일(수)~26일(주일)
8박9일	5월 20일(수)~28일(목), 6월 17일(수)~25일(목)
40일	10월 1일(목)~11월 9일(월)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5월 15일(금)~18일(월)·6월 19일(금)~22일(월)·7  
 월 17일(금)~20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분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부활 축제 치유 대피정**

강사: 정순택 대주교, 정윤희 신부, 송봉모 신  
 부, 김성기 신부, 이창진 신부, 양창우 신부  
 때: 5월 8일(금) 18시~9일(토) 17시30분(1박2일)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숙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  
 씬초대 /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특화된 프로그램)  
 때: 4월 28일~30일·5월 23일~25일·10월 22일~24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파티마 국제 순례 성모상 한국순례 기념 및 연  
 합별 대피정(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강사: 신동규 신부(부산교구)  
 미사 주례: 구요비 총대리 주교  
 때, 곳: 4월 30일(목) 12시~16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5월 15일~17일·6월 19일~21일·7월  
 17일~19일, 마라도 7월 3일~5일·7월 10일~12일·8  
 월 21일~23일, 우도 7월 24일~26일, 추자도 성지  
 순례 5월 4일~6일·5월 29일~6월 1일·6월 4일~7일  
 ·6월 12일~14일·9월 4일~7일·9월 11일~14일·10월  
 31일~11월 3일 / 문의: 064)732-4702 면행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쉽고 함께  
 제주의 봄 여행과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분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철쭉·자연순례 5월 2일~4일·5월 8일  
 ~10일·5월 11일~13일·5월 12일~14일·5월 21일~23  
 일·5월 23일~25일·5월 28일~30일(성모의 밤)·6월 5  
 일~7일·6월 13일~15일·6월 20일~22일, 추자도 포  
 함 성지순례 5월 16일~19일·5월 31일~6월 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교육**

**고상·성모상·묵주 만들기(가톨릭목공예)**

CWC가톨릭목공예 네이버 검색 / 문의: 010-5234-5044

**시니어 종이접기·인생노래교실 모집**

시니어종이접기조형, 인생노래교실, 영어ABC기초  
 반 모집 /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회원 모집** / 문의: 02)324-0852

전통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 lukeglass.com 참조

**제28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캐나다	Toronto대학 영어캠프, 미동부 및 MIT+IVY 리그 대학탐방
미국	UCLA 영어캠프, 미서부 투어 및 명문대학 탐방
영국	Oxford대학 영어캠프, 서유럽 3개국(프랑스·독일·체코)

**청년기도학교(전교가르멜수녀회)**

때: 대면반 5월 19일(화), Zoom반 5월  
 21일(목) 19시30분(총10강) / 문의: 010-7523-0956  
 인스타그램: @carmelitas1977

**새천년복음화학교 154기 1단계 개강**

때, 곳: 5월 21일(목) 10시, 가톨릭회관 527호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때, 곳: 5월 7일~7월 9일 매주(목) 10시~13시(10  
 회),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인문학 강좌-명동 산책**

근현대 문화유산-명동의 과거와 현재(강의 1시  
 간30분+답사 1시간30분) / www.ijscen.or.kr  
 때: 5월 11일·5월 18일 (월) 14시~17시(총2회)  
 문의: 02)726-0700 명동 전진상영성센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6년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  
 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월 1일(월) 14시  
 원서접수: 5월 4일(월)~15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가톨릭 상장레움악연구소 특강**

주제: 죽음 앞에 선 인간(신앙인의 영적 죽음)  
 강사: 손영순 수녀(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  
 답했다 저자) / 회비: 1만원  
 대상: 개인 및 분당 단체 / 문의(접수): 010-3211-  
 8941 성음악위원회 상장레움악연구소  
 때, 곳: 5월 9일(토)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5월 7일(목)~8일(금) 9시30분~18시, 여의도  
 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1804, 5  
 4월 30일(목)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접수 6만원  
 계좌: 우리 832-04-100745 가톨릭대학교여의도  
 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톡채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안화의료센터

**가톨릭신앙아카데미 43기 모집**

대상: 방송, 신문, 출판, 홍보, 광고, 뉴미디어 등 미디  
 어 종사자(1976년 이후 출생) / 문의: 이메일(ca\_sinang\_ac@  
 naver.com), 010-5294-6207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때, 곳: 5월 19일 개강, 매주(화) 19시20분부터 2시간  
 (주일 피정 포함총10회), 서울대교구청(명동) 본관 501호  
 사회교리, 미디어윤리, 삶과 영성 등 다양한 주제  
 의 강의 및 나눔, 서울대교구장 명의 수수료 수여  
 회비: 20만원(개근·정근 시 소정의 장학금 지급)

**모집**

**시스피나 시니어 합창 단원 모집(홍성)**

그레고리오 성가와 전통전례성가 연주 및 봉사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010-9842-8818

**명동대성당 무지카시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초2~5학년 남아(세례자 또는 예비세례자)  
 문의: 010-7372-0808 (문자)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침묵과 고독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  
 고자 하는 이 / 문의: 010-9836-8998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 합창단 2027년 60주년 기념음악회를 함께 할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55세 이하 성 음악합창경력자(전 파트 약간명 / 테너·베이스 우대) 연습: 매주(토) 15시,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활동: 월1회(넷째주 토) 성음악미사봉헌, 봄·가을 정기연주회 / 문의: 010-5397-7387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 미사** / 문의: 02)727-2053  
 때, 곳: 4월 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국악인을 위한 국악 미사(우리백소리)**  
 때: 매주(주일) 오후 6시 / 소리, 연주 참여 가능  
 곳: 독립문 무악동 선교본당 / 문의: 010-2949-1362

**성글름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강의**  
 때, 곳: 4월 24일(금) 14시~16시, 골품반 선교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4월 24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4월 28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바로수도회 협력자 월례 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5월 4일(월)~6일(수) 11시, 본원(미아동)  
 문의: 010-8684-1360

**정신석 추기경 선종 5주기 추모 미사**  
 때, 곳: 4월 25일(토) 오전 11시, 천주교용인추모 공원 성당 / 주례: 염수정 추기경  
 문의: 02)727-2150 정신석 추기경 선교후원회

**안내**

**울릉도 천부성당 영성센터**  
 바가지 없는 하느님의 쉼터  
 문의(예약): 010-4097-0090 / 홈페이지: www.soulstay.at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컷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국가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 기관  
 가족·모래놀이 상담, 주말 가능 / 문의: 010-2199-3439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바보의나눔 '추모·유산기부' 캠페인**  
 고인을 위한 추모기부는 사랑을 남기고, 유산 기부의 약속은 나눔으로 전해집니다  
 기부 문의: 02)727-2507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4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 ·분당(구미동성당) 2만원 ·서울 양천구 0~2만원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곳: 강남, 장충동 / 문의: 010-9139-1937

**카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카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www.karf.co.kr)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8146-7655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어르신케어 요양 보호사 모집 / 문의: 010-7171-9503

**도미니코 피정의 집(황성) 주방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장애인거주시설 H2빌 직원 모집**  
 간호사(간호조무사), 위생원, 생활재활교사 모집  
 곳: 전철 5호선 방화역 인근 / 문의: 02)6925-2366

**가톨릭신문사 신입경력 직원 모집**  
 분야: 기자, 신문 홍보·광고, 기획 / 4월 21일(화)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office.catholictimes.org) 참조

**(사)한국카리타스협회 직원 모집**  
 분야: 국내 사회복지 1명(사회복지사 자격증, 실무 경력자 우대) /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5월 4일(월) 18시까지 서류 접수(cckna@caritas.or.kr)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직원 모집**  
 접수: 5월 10일(주일)까지 / 분야: 영상PD, 신문편집, 기자, 총무, 전산, 자료집의, 광고영업, 선교후원  
 문의: 02)2270-2116 / 채용 홈페이지 참조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모집**  
 분야: 영상 홍보, 번역, 행정 사무(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4월 30일(목) 14시까지 서류 접수  
 이메일(mano@cckc.kr) 문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기부후원, 커뮤니케이션부, 순례자부, 봉사자부, 행사총괄, 운영총괄부 등 / 모집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ydseoul.org  
 이메일(recruit@wydseoul.org) 문의·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세탁근무자 모집**  
 곳: 강남구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세탁근무자 1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각 1부 / 이메일 문의  
 5월 3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매월 첫째주(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혜화동)	010-4344-1997 권정대 수사 신부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5075-3513 권성한 신부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수시	여의대방로65(영등포구 신길6동)	0507-1306-1505 / 카카오톡채널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예수의 가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4월 26일(주일) 10시~15시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7542-7845
전교가르멜수녀회	4월 26일(주일) 14시	본원(통의동, 전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010-7523-0956 / 인스타그램: @carmelitas1977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광진구 아차산로 32길 13	010-9695-1366 로메라 수녀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수시	본원(경북 칠곡 동명), 계산서원(대구)	010-3265-621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4월 25일(토)·4월 26일(주일) 14시	가톨릭회관 209호,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잠심으로 읽는 성경**

정규찬 지음  
마리페이퍼 | 203쪽 | 2만원  
문의: 010-3845-3045

‘알도 그 얇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잠심의 눈으로 성경 속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돕는 묵상서이다. 성경의 인물과 배경의 의미를 차분히 짚어 가며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더 분명히 바라보도록 이끈다. 독자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가는 여정으로 초대하며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신간  
**불임여행**

지나.브루스 하네만 지음  
생명위원회 | 45쪽 | 비매품(자발적 후원금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02)727-2350

불임 문제에 직면한 부부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선택지와 의학적 제안들은 때로 위험할 수 있다. 이 책은 부부가 함께 걸어가야 할 여정이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인적인 여정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생명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보이지 않는 생명**

지나.브루스 하네만 지음  
생명위원회 | 46쪽 | 비매품(자발적 후원금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02)727-2350

산전검사의 사용과 그 함의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생명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신학적 성찰과 가족의 시선 속에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탐구하게 한다. 이 책은 독자들이 산전검사와 생명에 대한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악회  
**마르쿠스 슈텐츠와 바딤 글루즈만**

일시·장소: 5월 28일(목), 롯데콘서트홀 · 29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1588-1210  
입장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4명 20% 할인**

서울시향과 마르쿠스 슈텐츠가 5월 28일 롯데콘서트홀과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이 협연하며, 이어 윌리엄 월턴의 교향곡 1번으로 교향악의 깊이를 전한다. 굵직한 작품들과 함께 오랜만에 관객과 만난다.



공연  
**판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일시·장소: 5월 5일(화)~10일(주일) 오전 11시·오후 2시, 노원어린이극장  
입장료: 전석 3만원 / 문의: 02)2278-5741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4명 30% 할인**

판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이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노원어린이극장에서 공연된다. 판소리와 뮤지컬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바닷속 세계에 빠진 소녀 연자가 ‘짜깁상어’에 맞서 잃어버린 오빠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슬픔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족 공연이다.



음악회  
**루멘챔버콰이어 2026 기획연주회**

일시·장소: 4월 27일(월) 오후 7시30분, 반포심산아트홀 / 문의: 010-6409-5330  
입장료: 전석 2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4명 50% 할인**

루멘챔버콰이어 기획연주회 <피아노가 합창을 만나, 봄>이 4월 27일,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열린다. 교회음악전문합창단 루멘챔버콰이어가 정남규의 ‘피아노 미사곡(Klaviersmesse)’을 중심으로 현대 모테트와 영국 마드리갈, 가곡 등을 선보인다. 피아노의 화려한 선율과 봄과 꽃을 노래하는 곡들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이다.

◆◆ 기부 천사 ◆◆

명동 종합계획 2단계 기금  
(3월 30일 ~ 4월 5일 : 1,000,000원)  
누계 : 7,794,250,977

익 명 : 1,00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 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주님과 음악 사이에」 연주회

·일시/장소 :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시 30분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세례자 또는 예비세례자(1년 이내 세례예정)  
초 2~5학년 남아

문의 및 지원 : QR코드 접속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천주교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08-2882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용기장학회 월례미사

용기장학회 월례미사는 선종하신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과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일시/장소 : 4/27(월) 오전 11시 / 파밀리아 채플

·주례 : 박요한 신부님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 고준석 신부님

·문의 : 용기장학회 사무국 ☎ 727-2525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 방법 안내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은 본당 사무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전화 신청 및 사무실 대리 신청 불가). 주교좌 성당이기에 연중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가 거행되고, 여느 본당보다 신청자가 많아 신청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별 마감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 날 오후 미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원하시는 날짜 사흘 전까지 방문하시면 마감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사무실 > 방문 신청 및 요일별 마감시간

· 화~금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다음 날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토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일요일 오전 7시·9시·10시·11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일요일 : 오후 2시에

당일 오후 미사 ~ 월요일 오전·오후 미사 & 화요일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이 휴무이므로 월요일 오전과 오후 미사 모두 오후 2시에 함께 마감됩니다.

◆ 법정 공휴일 미사 신청

법정 공휴일(설 연휴·삼일절·선거일·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현충일·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과 근로자의 날은 성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휴무일 전후로는 사무실 방문 신청 마감 시간이 평시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중 일요일과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은 정상근무합니다.)

◆ 대성전 > 현장 신청

·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미사, 화~토요일 오전 10시 미사에 한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성전 입구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작성하시고 예물을 담아 제대 앞에 놓인 생미사함(연미사함)에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미사 전 수거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접수된 지향자 명단과 함께 신부님께서 추가로 호명해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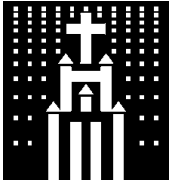
☞ 지향자가 가톨릭 신자이면 '성(姓)+세례명'으로 호명되고, 비신자일 경우 '성명(姓名)'으로 호명됩니다.

◆ 신청 불가한 미사

- 주일 및 의무 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평일미사가 장례미사로 봉헌될 때
- 평일미사가 교구에서 정한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될 때

◆ 연미사 신청만 가능한 미사

- 매년 명절(설·한식·한가위)과 위령의 날(11월 2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는 '합동 위령미사'로만 봉헌되어 생미사 신청은 불가하고, 지향자 호명은 하지 않습니다.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품(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일학교신앙교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이사악 세베로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33	봉헌 : 510, 219, 342	성체 : 504, 167, 173	파견 : 134
-------	----------	--------------------	--------------------	----------

### ◎ 5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주일반	오후 4:00	교구청본관 402호	한 크리스티나 수녀

- 매주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5/3(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
- 첫 수업 : 5/10(일)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만 19세 이상만 신청가능
- 준비물 : 교재 및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 성소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부활 제 4 주일은 「성소 주일」로 성소 계발과 성소자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제63차 서울대교구 성소주일 행사 및 미사

- 일시 : 4/26(일) 13:00 ~ 17:00
- 장소 : 명동대성당 및 교구청별관 일대
- 대상 : 청소년 및 청년 성소자
- 사제·수도자 성소계발 및 홍보를 위한 참여마당
- 교구장님과 함께 하는 미사 (오후 2시 / 대성전)
- ※행사시간 차량 진입 불가

### ◎ 2026년 명동대성당 영성특강 II - 예수마음기도

- 강사 : Fr. 양기승 사도요한 (예수마음피정의 집 관장)
- 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은 교우 (교적제출 및 확인)
- 접수 : 1주차 5/2(토) 16시부터 강의장소 앞 현장 접수
- 장소 / 시간 : 교구청본관 501호 / 17:00 ~ 18:40  
\*기도실습 포함
- 기간 : 5/2~6/27 (매주 토요일 총 8회) \*6/6(토) 휴강
- 접수비 : 30,000 \*교재비 별도 (개별지참)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권민자 저
- ※접수비는 강의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반환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헌금영수증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가)
- ※시간·주제·장소·강의 순서는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시작 이후에도 접수 가능하나, 접수비는 동일함.

### ◎ 4월 세례예식 감사예물

지난 주일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감사예물로 3,226,000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사랑은 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고, 옆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 보이는 것도 사랑이다. 마음에서 미움을 털어 버리고 화해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런데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려면 기도해야 한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中)

사랑의 실천은 커다란 것에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시작입니다. 작은 사랑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 ◎ 부활 구역미사

- 일시/장소 : 4월 28일(화) 오후 6시 30분 / 소성당
-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소성당)
- 미사 후, 다과 및 친교 (만남의 방)
- ※명동, 회현, 남산, 인현, 필동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신자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모임 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총구역장 ☎ 010-2222-1944

### ◎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지휘자 모집

- 자격 : 견진성사를 받은 가톨릭 신자로 정규 음악대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서류 : ①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기타증명서 및 추천서  
②음악대학 졸업증명서
- 접수 : 이메일 mdsdca@catholic.or.kr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 참고

### ◎ 우리는 <명동보름장>이 있습니다.

-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10-16시

###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6-4/12).....19,746,200
- 부활 제 2 주일 헌금.....45,823,783
- 감사헌금 (4/6-4/12).....10,431,001
- 김 모테오 / 김 다니엘 / 김 마르타 / 김 마리아
- 김 미카엘 / 명 라파엘라 / 박 레지나 / 박 프란치스코
- 백 안젤로 / 백 에밀리아나 / 심 에메렌시아나 / 오 젤프루다
- 우 안드레아 / 이 가브리엘라 / 이 레오 / 이 마르타
- 이 안드레아 / 임 사무엘 / 전 마리스텔라 / 표 요안나
- 하 비탈다 / 한 나탈리아 / 한 라파엘라 / 김지영 /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육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고해성사 (Confession)					
	주일미사 (토요일)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평일미사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